

## ■ 2023년도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대본공모\_창작오페라분야
- 회의일시  
- 2023년 4월 24일(월) 14:00 ~ 15:00
- 회의장소 : 온라인 회의

대본공모전 개최를 통해 창작 오페라 분야의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는 본 사업은 동시대성 및 예술적 다양성을 가진 극작가 및 작곡가를 발굴 및 소개하여 예술가가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의대상에 오른 작품들은 지원자 비공개(블라인드 심사)로 심의가 진행되었고 작곡, 지휘, 연출, 극작, 실연자 등 7명의 각 분야 심의위원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주제와 소재 등의 요소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미학적 구성을 갖추었는지, 다른 작품들과 경쟁점이 있는지, 동시대성을 반영하고 관객과의 공감 가능한 정서를 담고 있는지, 특히 대본과 음악이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작품의 완성도와 이에 따른 무대화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6건의 접수 작품 중 자격요건에 상충하는 두 작품을 제외한 네 작품이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흥미로웠고, 특징들도 분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이 독특하고, 동시대적인 발상을 소재로 삼은 작품에 대해 좋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음악적 구성과 악기의 사용 등을 작품의 소재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전개시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많은 대사 부분이 다이얼로그로만 표현되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극적 긴장감의 문제가 레치타티보로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논의들이 있었고, 음악적으로 다소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무난한 전개와 듣기 쉬운 음악이 장점인 반면에 극적 구성에 있어서 진부해질수도 있다는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극과 음악적 스타일이 비교적 잘 맞아가고 특정 장면에서 매력적으로 기억될만한 장면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졌으나, 예측가능한 구성이 관객을 끌어당길 수 있을가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남습니다.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작품도 있습니다. 소재와 구성이 독창성을 갖는 만큼 무대화 되었을 때에 기대감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소재와 흥미로움을 지지하는 음악과 특정 소재를 표현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잘 맞아 떨어지는 감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주제 명확성이 부족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집필한 작품의 규모에 비해 러닝 타임이 극단적으로 짧은 부분은 극적 서사의 결핍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음악이 쉽게 잘 들리는 장점은 일반적으로 단순하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정 장면의 구성을 보여주는데 짧은 공연시간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음악적 스케일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적이거나 도전적인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작품들이 극적·음악적으로 무난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창작 오페라의 경향을 보면 한국의 위인, 역사물, 현대 문학을 다루던 것에서 최근에 와서는 동시대적인 사고를 다루는 작품들이 대두하고 있음도 많이 나타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음악을 극음악으로 차용하기보다 관객의 입장에서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음악을 작곡하려는 의도 역시 근래의 경향으로 보이지만, 음악이 갖는 색채와 개성들이 극적으로 뚜렷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향후에도 많은 극작가 및 작곡가가 본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선정된 작품은 2024년 올해의신작(후보) 실연심의 전까지 노력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2023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심의위원 일동